대안문화론   
代案文化論 Theory of Alternative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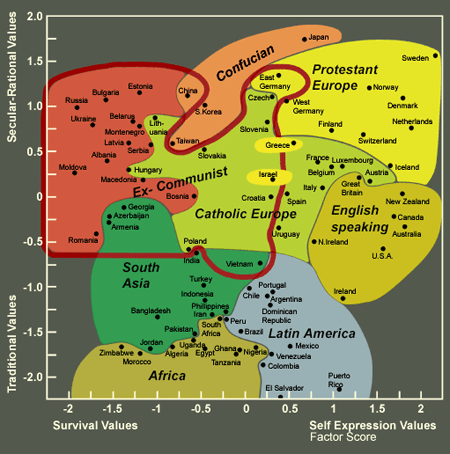
**1. 문화의 범위 – ‘문화연구 cultural studies’**

1. 집단이나 시대, 사람들의 특정한 생활 방식 “a particular way of life, whether of a people, a period or a group”
2. 지적, 정신적, 심미적 능력 계발 과정 일반 “a general process of intellectual, spiritual and aesthetic development”
3. 지적, 예술적 행위의 산물 (작품과 실행) “the works and practices of intellectual and especially artistic activity”

(Raymond Williams, *Keywords,* London 1983)

a. 문화 [文化 Kultur / Culture]

* Kultur, culture < cultura(la.) <colere (가꾸다, 키우다, 경작하다, 육성하다)
* 키케로: 철학은 cultura animi = 정신의 밭을 가는 일.
*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그리고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취득한 그 밖의 모든 능력과 습관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 (E.B.Tylor)
*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는 일, 행동방식, 사고방식, 감정, 사용하는 도구, 가치, 상징 등의 총체” (R.S. Lynd)
* “획득되고, 사회적으로 전수된 행위의 총체” (F.M. Keesing)
* “인간 공동체의 비유전적 삶의 표현 체계 및 그 산물” (J.P.B. de Josselin de Jong)
* **문화 =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
* **\* 자연에 속하지 않는다**
* **\* 학습되고 전수된다**
* **\* 개인과 사회의 변증법적 산물**
* **\* 사회적 구속력과 결속력을 갖는다**



**Inglehart-Welzel Cultural Map of the World**

This map reflects the fact that a large number of basic values are closely correlated; they can be depicted in just two major dimensions of cross-cultural variation.

Source: Ronald Inglehart and Christian Welzel,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64 based on the World Values Surveys, see www.worldvaluessurvey.org.

**b. 문화의 범위 – ‘문화와 문명의 전통’**

* 문화는 지식체계 (a body of knowledge)
* “인간 사고와 표현의 정수 (the best that has been thought and said in the world)”
* “sweetness and light” = 문화의 특성은 도덕적/사회적 이득을 주는 데 있다. (이성과 신의 의지가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
* 교육이 문화의 지름길 = 문화(권위의 원칙)의 반대말은 무정부 상태
* 문화는 인간 사고와 표현의 정수를 알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지식체계이며 그 지식을 정신과 영혼의 내적 상태에 적용시킨 것

(M. Arnold, *Culture and Anarchy*)

**\*\*\* 특수성과 고유성의 상징 =>**

**b-2. 차이의 절대성에 근거한 문화모자이크론**

**차이로서의 문화개념:**

* **문화란 정태적이며 어느 정도 자체로 완결된 체계**
* **불변의 고정적인 것**

1. >>> 문화적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자각
2. : ‘미래의 갈등전선은 문화의 단층면을 따라 이어진다’
3. : “사고방식의 차이는 없앨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온다” (G. Hofstede)
4. ‘고유’의 문화

* Herder: 문화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민족의 유전적 정신과 성격”을 구체화 한다.
* 1871 Bismarck의 ‘독일제국’ 건설의 근거 (문화적/정치적 통일 이념)

**\*\*\* 정태적 문화 개념은**

**2.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 – 문화의 사회적 기능**

* 인간 태도의 상징적/표현적 측면으로서 문화:

주관적 가치, 이념, 세계관 및 의의에 기반

+

* 객관적인, 관찰 가능한 행동방식, 언어, 경제 및 사회형태의 한 측면
* ‘우리의 일상은
* 문화는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영역이 아니다

**2.2. 문화의 사회적 기능**

* **Pierre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1984**>**
* 주관적 가치들(취향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인들)은 따위의 객관적(하드웨어적) 요인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서로를 규정한다.
* 사회적으로 분별공식의 획득 => => 문화적으로 선/악의 구분 => 가치와 행동(자동차 구입/결혼 상대/음식/소비 등)에 작용

1) 사회 각 계층 사람들은 보다 존경 받는 신분을 획득하고자 경쟁

2) 서로 다른 취향은

3) 취향은 때문에 타자의 ‘나쁜’ 취향에 반감을 느끼며 ‘분노’한다 (친구나 동반자 선택에 결정적 요소)

소결론: 문화와 이데올로기

* 비물질적 요소와 주관적 가치 및 표준들을 들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 문화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문화적 변화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 ‘다른 취향’의 선택은 의미한다

3. 세계화와 문화

**세계화(Globalisation):** “국민국가들과 그 주권이 초국민적인 행위자, 이들의 권력 기회, 방향설정, 정체성, 네트워크를 통해 마주치고 서로 연결되는 과정 = 근대 국민국가의 국경을 초월 사회 전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상호교류와 연계성이 빠르게 강화되어 가는 현상

**세계성(Globality)**: 테크놀리지, 미디어, 아이디어, 교통, 시장, 그리고 금융을 통해 서로 연계된 세계의 현재 상태 = 객관적 현실

**세계화주의(Globalism)**: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실천 = 세계시장이 전 세계 변화의 유일한 추진력이자 척도이며 세계화의 다른 모든 차원들, 특히 정치적 차원을 규정짓는다 (경제세계화)

**세계화와 문화 변환의 특징 (앤소니 맥그루)**

1.

2.

3.

4.

5.

# “세계화 시대 문화변환이 갖는 일련의 특징은 서로 상반되어 모순적이고 변증법적이며 시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경험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기존의 흑백논리 를 벗어나 세계화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을 요청한다.”

4. 대안문화에서 ‘문화’: 문화의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안문화’ 정의에서 중요한 점

# 대안문화와 관련된 ‘문화’는

# 대안문화는 이해할 수 있다.

# 세계화를 통해 대안문화는 맥락을 띠게 된다.

# 대안문화 분석은

# 요구한다.

# **II. 대안[代案 Alternative]**

**1. 어원: alternus/alter + nascor**

- alternus (*lat*.) : 교대의(abwechselnd, wechselweise)

* alter : 영 = the second, **the another one**

독 = der zweite / der eine von zweien /

**der andere** /

* nascor (nasci natus) : 나오다/ 태어나다

영= : to be born, spring forth

독 = aus dem anderen geboren (**다른 것에서 나온**)

**2. 의미 (사전):**

**A.** 어떤 안(案)을 대신하는 안.

**B.** 선택

* [Duden]
* [Brockhaus]

**C. 동의어:**

**3. 의미-사례:**

상실된 치아 … 대안은 임플란트!

요즘 치아 상실로 인한 치료 중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 임플란트를 꼽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존하는 보철물 중 가장 자연치아와 가깝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대안을 내놓다

- 대안을 제시하다

- 현실적인 대안을 찾다

- 이 방법도 썩 좋지는 않으나 다른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 “한편 생각하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낙관이라고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대안도 없이 남의 신념에 물을 끼얹고 싶지도 않았다.”

≪이병주, 관부 연락선≫

**4. 의미 (확장):**

영: 현대서구사회에서 기존의 것과 다른 행동방식이나 범주를 의미.

예를 들어 ‘대안적 생활방식(**an alternative lifestyle)’** 은

통상적인 생활 및 노동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 conventional**

**독:** 기존 시민 사회와 다른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생태와

시민권리확대를 추구하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말

([GAL: Grüne und Alternative Liste](http://www.gal-fraktion.de/cms/default/rubrik/0/30.galfraktion_de.html) )

**5. 의미-사례 (결정 Entscheidung):**

**대안 운영 체제** [代案運營體制, Alternative OS]

 윈도즈 운영 체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운영 체제를 총칭하는 용어. 대안 운영 체제는 유닉스, 리눅스, BeOS, 아미가 운영 체제 등 윈도즈 일색인 운영 체제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하여 특정 분야에서는 윈도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다음 IT전문사전)

**대안화폐**

특별한 상품에서 상환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금, 은, 물, 기름, 음식과 같은 고정된 양의 상품을 신뢰를 가지고 교역할 수 있는 **토큰 코인**으로 이루어진 돈에서부터 물리적이지 않은 디지털 증명도 포함한다.

(위키백과 사전)

**대안가족**

기존의 혈통중심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와 연대의 개념으로 뭉쳐진 가족과 유사한 관계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여성부\_위민넷)

**6. ‘가치’로서의 대안 (代案 Alternative)**

1. **대안은 대체이자 동시에 을 의미할 수 있다.**
2. **대안은 단순한 대체 가능성을 넘어 포함하고 있다.**
3. **대안은 결단의 형태를 취하며 담고 있다. (낯섦과 불확실성)**
4. **개인 주변의 삶의 형태에서부터 사회적 법, 제도, 관습, 예술, 가치 등 모든 것에서 대안이 가능하다.**
5. **대안은 의미한다.**

**7. 의미 (철학) – 5)와 연관해:**

행동과 연관해 대안은 모든 행동가능성 혹은 실질적으로 수행된 행동에 더해 최소한 다른 행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행동 혹은 다른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은

1. 한 가지 행동을 수행하거나 포기할 자유로운 의지와
2. 추구하는 목표를 위한 수단, 즉 어떤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상이한 행동가능성들,
3. 행동 가능성들의 영역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상황적 주변 환경,
4. 행동의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Metzler Philosophie Lexikon)

**III. 대안문화 개념규정**

**A. 정의**

1.

2.

3. 구성요소

-

-

-

-

-

**B. 대안문화의 학문적 분석 요소**

1. 주체
2. 반성
3. 평가와 비전

**C. 대안문화 Alternative Culture - 범위**

= 대안적 가치를 가진 문화 전 영역의 시도들

* 의식과 생활방식

마을, 공동육아협동조합, 귀농/ 몸 그리고 여성/ 생태도시, 녹색자치/ 녹색대학 / 문화교육네트워크 / 지속가능소비문화 / 문화운동의 생태적 전환 / 야마가시즘/ 채식 / 다문화 가정시대 문화교육 / 공정무역운동, 녹색경제, 생협, 의료생협, 지역통화운동, 대안화폐 / 안산 국경 없는 마을, 문화민주주의, 생태정치/두레마울, 산티아, 한마음 공동체, 생태문화코뮌 / 생산 참여형 소비자운동, 소비양식, 쓰레기 제로운동, 지속가능 소비문화 / 페미니즘, 성숙한 죽음문화 등

* 예술문화

동양적 연결주의/ 디지털 갤러리, 미술은행제도 / 인디음악문화 / 생태건축, 환경친화적 도시건축/ 축제 등

* 매체

우리말글, TV여성채널 / 노인신문 / 온라인저널리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역** | | **Das Eine** | **새로운/재발견된 가치** | | **Das Andere** | | **출처** |
| 삶과 의식 | | 이성애주의 사회의 모순 | 가부장제의 소멸/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다양성 존중 | | 동성애 결혼과 가족 | | 한 채윤 <동성애-결혼과 가족의 획일성 깨기> |
| 공교육과 도시생활 | 배려하고 돌보는 학습 생태계 ‘마을’ 복원 | | 대안공동체와 교육 (싼티아) | | 염기호<대안공동체 싼티아속에 들어가다> |
| 의사/가족의 윤리적 딜레마 | 인간적이면서 존귀한 죽음의 확보 | | 대안적 죽음문화 | | 오진탁 <성숙한 죽음문화의 모색> |
| 도시적 가치판단(문명의존/자연적대) | 삶의 전면적인 전환 | | 귀농: 농사가 아니라 농촌살리기 | | 이진천 <귀농 자체가 대안이고 운동이고 희망이다> |
| 성편항적 시각에 의해 구성된 스포츠 | 몸과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 | 여성주의적 스포츠 이념과 제도 | | 박영옥 <성 편향적 스포츠와 여성주의적 대안> |
| 현대 소비주의 문명 | 거대한 질주로부터의 이탈 - 공생과 행복의 길 모색 | | 쓰레기 제로운동 | | 법륜 <쓰레기에 감춰진 새문명의 비밀> |
| 경쟁을 통한 효율 사회 | 협동/자율성에 기반한 호혜적 네트워크 | | 생태적 문화사회와 문화교육 네트워크 | | 나영 <생태적 문화사회와 문화교육 네트워크> |
| 매체 | 디지털 사회의 개인화-네트워크화 | | | 경제논리를 넘어선 참여와 개입에 대한 전망 | | 디지털 사회 -소통의 문화 | 김예란 <디지털 사회-소통의 문화> |
| 사회/정치/언론 환경의 문제 | | | 대항공론 영역의 활성화 | | 주민발의 매체 | 박춘서 <대항공론영역으로서 주민발의단체의 대안신문> |
| 기존 주류 언론의 정보독점 구조 | | | 새로운 지식생산 및 여론 형성 | | 온라인 저널리즘 | 박선희 <대안언론으로서 온라인저널리즘의 가능성> |
| 노인에게 필요한 읽을 거리 | | | 신노인 문화구축 | | 노인신문 | 노인전문신문 ‘시니어 타임즈’ |

|  |  |  |  |  |
| --- | --- | --- | --- | --- |
| 예술문화 | 주류 미술관의 상업주의 | 미술가들을 위한/미술가들에 의한 자기표현 | 대안공간 네트워크 | 김성호 <대안공간 네트워크의 기대치와 한계> |
| 기술이데올로기 시대 | 언어의 틀로부터 해방 - 자연의 회복 | 몸문화론 | 인터뷰 <몸문화론> |
| 문학의 상업화 | 건강한 정신 | 대안문학 | 김창원 |

**D. 참고문헌: 이하 중요한 참고문헌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 목차를 수록합니다. 일별하고 발표 선택시 참조하세요!**

1. **세상을 바꾸는 대안 기업가 80인**

저자: 실벵 다르니 / 마튜 르 루 출판사 : 마고북스 출판연도: 2006.3.20

★ 저자소개

\*실벵 다르니

실벵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태어났다. 프랑스의 상경계 엘리트를 배출하는 그랑제꼴 ESSCA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앙제와 파리, 뮌헨에서 4년을 보낸 뒤, 상파울루의 푸조 자동차회사 재무관리 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마튜를 만나 열다섯 살 이후로 꿈꾸어 오던 세계일주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네팔의 학교 개축과 모로코의 오지마을 건설, 브라질의 빈민 지역 개발 등 여러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개발과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실벵은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시각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여행에 열정을 쏟아 왔다.

\*마튜 르 루

마튜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툴롱에서 태어났다.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인 HEC에서 수학하면서 학생회 활동과 학교홍보영화 제작에도 참여했다. 석사과정을 마친 뒤 샌프란시스코의 컨설팅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을 설립한 무하마드 유누스에 관한 책을 읽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해 눈뜨게 되었다. 그 후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프랑스 향수 수입업체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실벵을 만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구자들을 찾아서 세계일주에 나서게 되었다.

이름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브라질에 파견되어 각각 재무분석과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두 청년, 실벵과 마튜는 꿈꾸어오던 세계일주를 함께 실현하되 성공적인 삶의 모델, 즉 자신들이 그 안에서 미래의 지침을 구할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 세계를 한 바퀴 돌기로 의기투합한다.

이들은 6개월간의 준비와 15개월간의 세계일주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방적인 낙관주의, 인류를 위한 실용적 공헌,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업정신, 변화의 생산과 전파라는 키워드로 자신들의 영웅 80인을 찾아낸 두 청년은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80인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내고 있다.

부를 창출하는 기업과 전투적 행동주의자 사이의 이상적 혼합체를 지향하는 이들은 재난에 대한 예언을 즐기는 대신 긍정적 대안을 찾기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실에 구현하는 길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그들의 삶과 업적을 통해 우리가 소원하고 또 가능한 미래에 한발 앞서 예견해본다.

**★ 목차**

막시밀리앙 루에의 서문 … 당신의 마음과 행동을 자극할 이야기

책머리에 … 80인을 찾아 떠난 세계일주

제1부 유럽

트리스탕 르콩트 … 생산자가 행복해지면 생산물도 더 맛있어진다

그 외빅토르 페리라│시살리아오 스벤수카│폴 라이스│엑토르 마르첼리

피터 말레즈 … 인체의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다

그 외티에리 카자지앙│월터 스타헬│유스케 사라야 │귄터 파울리│재닌 베니우스

피터 코퍼트 … 나를 지키기 위한 어느 농부의 도전

그 외반다나 시바 │레스터 브라운

요르겐 크리스텐슨 …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원이 순환하는 공단

그 외슈렌 어크만│라메쉬 라마스와미

얀 페터 베르크비스트 … 5천 호텔 직원, 자원 사냥에 나서다

그 외칼 헨릭 로버츠

칼 슈투즐 … 적게 팔고 효용을 극대화하다

카를로 페트리니 … 덜 먹자, 그 대신 더 잘 먹자

그 외프랑스와 르마르샹

제2부 아시아

고빈다파 벤카타스와미, 데이비드 그린 … 35 대 65의 아름다운 균형

찬드라 구룽 … ‘비밀의 정원’을 넘어

술로 슈레스타 샤 … 노동을 통한 여성해방의 모델

무하마드 유누스 … 가난의 첫 번째 고리를 풀다

그 외엘라벤 바트│마리아 노와크

이프테카르 에냐예툴라, 막수드 신하 … 유기물 쓰레기가 자원이 되기까지\_125

그 외라비 아가르왈│디팍 니룰라│아닐 치트라카르

수라이야 학 … 기업 내 탁아소의 가치를 입증해 보인 여인\_135

알렌 찬 … 블랙홀 중국의 나무 소비에 대응하다\_143

그 외탕 시아올리│안톤 볼프강 폰 파버 카스텔│왕가리 마타이

다카오 후루노 … 오리에게 부탁하여 무농약을 실현하다

그 외허버트 브라츠

제3부 북아메리카

토마스 다인우디 … 어제와는 다른 태양 아래!

그 외알로이스 보벤

도브 차니 … 역주행 기업의 산업혁명

그 외마이크 해니건

닐 피터슨 … 미국 문화의 상징에 도전장을 내다

그 외미리암 반 외프트

애머리 로빈스 … 지구에 유익한 에너지를 위한 아이디어 실험실

윌리엄 드레이튼 … 변화를 퍼뜨릴 사람을 키운다

윌리엄 맥도너 … ‘덜 나쁜 것’으론 만족할 수 없다

그 외도미니크 비두│마코토 무라세│티에리 자케

개리 허쉬버그 … 맥도날드를 뛰어넘은 바이오 패스트푸드

올리버 피플즈 … 박테리아에 플라스틱의 미래를 걸다

에이미 도미니 … 월가에서 ‘윤리’를 속삭이는 여인

그 외젠느비에브 페론

레이 앤더슨 … 내 회사를 지속가능성으로 필터링하라

그 외폴 호켄│베르트랑 콜롱│리즈 킨고│파스칼 피스토리오

제4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기와 네카 마르코발디 … 바다거북과 지역 주민의 상생을 찾아

그 외파티 루이스 코르소│세바스찬 추바

호드리구 바기우 … 60만 빈민 청소년을 컴퓨터로 한데 묶다

자이메 레르네르 … 영혼이 깃든 도시의 침술가

그 외모리스 스트롱│페터 아이겐

파비우 호사 … 전기가 들어오니 젊은이들도 돌아왔다

그 외산짓 방카 로이

에르난도 데 소토 … 비공식경제의 죽은 자본을 깨우다

그 외자크 바라티에│에릭 쥘리앙│비벌리 무디

가스 제이펫 … 텔레비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건위생 의식을 흔들다

닉 문 … 아프리카의 미래, 소기업가들을 위해

그 외아닐 굽타│마리안느 크누스

맺는말 …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기후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

**★ 내용요약**

**\* 대안기업 이란?**

- 지속 가능한 발전

- 미래 세대들이 쓸 자원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극빈층을 포함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

**\* 즐거운 상상**

1. 병원의 수익으로 환자 중 3분의2는 무료로 치료해 주고, 인공 보조장치 등 의료기구를 통상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공급한다.

2. 자신의 나라를 미래의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 수천 헥타르의 숲을 개발한다. 그러나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다.

3. 화공산업체가 많은 양의 유해물을 배출하지 않고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을 위해 일한다.

4. 당신이 일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난방기구나 에어컨도 필요 없다. 그런데도 크리스마스에 마치 7월의 한낮에 있는 것과 같다.

5. 유기농이 관행농업과 같거나 더 많은 생산량을 내서 농민들에게 더 높은 소득을 가져다 준다.

이런 상상들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할까?

이런 세상은 존재한다. 우리가 그 세상을 일주했다.

이런 시도들도 존재한다. 우리가 그 시도들을 조사했다.

이런 기업가들도 존재한다. 우리가 그들을 만났다.

**1부 유럽**

**\* 생산자가 행복해지면 생산물도 더 맛있어진다.**

**공정무역 선두기업 알터 에코(Alter Eco)**

**문제제기-**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개발 국가 농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정관념-**사회적 소명과 기업정신은 양립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생산자가 행복하면 더 맛있는 농산물이 생산되고, 소비자와 시장은 그런 농산물을 선호하게 되어있다.

**\* 인체의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다**

**생태적 세제회사 에코버(Ecover)**

**문제제기-**어떻게 하면 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효력이 뛰어난 세제를 제조할 수 있을까?

**고정관념-**효력이 뛰어난 세제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작은 것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 내는 인체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어 효력이 뛰어나면서도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그리고 수익성도 있는 제품을 구상할 수 있다.

**\* 나를 지키기 위한 어느 농부의 도전**

**천적농법 선두기업 코퍼트(Koppert)**

**문제제기-**어떻게 하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살충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고정관념-**경작지의 파괴자들은 살충제로만 박멸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자연이 만들어 낸 창조물들을 무상으로 이용한다. (천적농법)

**\*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원이 순환하는 공단**

**칼룬보르(Kalundborg) 생태산업단지 조직자**

**문제제기-**거대한 산업단지가 주는 환경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정관념-**가능하긴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보잘것없는 잔해물로도 다른 유기체를 위한 자원을 만들어 내는 자연 그대로의 생명에서 영감을 얻는다.

**\* 5천 호텔 직원, 자원 사냥에 나서다**

**스칸딕 호텔 체인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문제제기-**호텔의 모든 업무를 환경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한다.

**고정관념-**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돈 많은 기업의 사치일 뿐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직원들로 하여금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환경에 관한 업무를 그들의 관심의 중심에 배치시킨다.

**\* 적게 팔고 효용을 극대화하다**

**염소용제 임대기업 세이프켐(Safechem)**

**문제제기-**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유해한 화학제품의 사용을 현격하게 줄여야 한다.

**고정관념-**언젠가 덜 유해하면서도 비싸지 않고, 비슷한 효능을 가진 제품이 개발될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현재의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되, 같은 양을 한 번이 아니라 백 번 이상 쓸 수 있도록 만든다.

**\* 덜 먹자, 그 대신 더 잘 먹자**

**환경친화적 식문화를 전파하는 슬로우푸드**

**문제제기-**식탁에서 나쁜 음식을 몰아내기 위해 신토불이의 맛과 요리법을 보존해야 한다. **고정관념-**그 계획은 어쩔 수 없이 패스트푸드에 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즐거움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식욕을 돋우고, 이탈리아뿐 아니라 패스트푸드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점차적으로 더 많은 동조자들을 만들려면 특별한 맛과 질을 찾아내야 한다.

**2부 아시아**

**\* 35 대 65의 아름다운 균형**

**무료 수술의 아라빈드 안과병원**

**문제제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정관념-**두말할 필요 없이 올바르고 자비로운 계획이지만 재정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수술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시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고안해 낸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더 넉넉한 환자들이 가난한 환자들에게 연대의식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 ‘비밀의 정원’을 넘어**

**친환경 자연공원 안나푸르나**

**문제제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

**고정관념-**녹색관광과 이윤추구의 관광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지역 주민들이 생태계 보호요원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 노동을 통한 여성해방의 모델**

**여성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 포메이션 카펫**

**문제제기-**네팔의 여성을 해방시키고 빈민층의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고정관념-**네팔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사회적, 윤리적 기업 모델은 현실성이 없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생산적이고 이윤도 추구하면서 어린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업을 만든다.

**\* 가난의 첫 번째 고리를 풀다**

**소액신용대출은행 그라민 은행**

**문제제기-**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구호소에 들어가지 않고 극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

**고정관념-**은행은 부자들에게만 대출해 준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네 명 중 세 명의 대출자를 극빈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은행을 만들어 그것을 전 세계에 전파한다.

**\* 유기물 쓰레기가 자원이 되기까지**

**폐기물 처리기업 웨이스트 컨선**

**문제제기-**저개발 국가의 대도시에서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처리방법 미비로 쓰레기 관리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정관념-**유일한 해결방법은 북유럽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방법을 모방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사료나 비료로 가공할 수 있도록 쓰레기의 유기물질을 회수하는 지역별 수거 조직망을 만든다.

**\* 기업 내 탁아소의 가치를 입증해 보인 여인**

**기업 내 탁아소 인큐베이팅 회사 풀키**

**문제제기-**저개발 국가의 여성들에게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고정관념-**가난한 나라의 어머니는 일하면서 아이들까지 돌보기가 어렵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기업 내에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블랙홀 중국의 나무 소비에 대응하다**

**수목재배 기업 시노 포리스트**

**문제제기-**삼림훼손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정관념-**숲을 개발해서 이익을 내려면 자연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이윤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베어 내는 양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다.

**\* 오리에게 부탁하여 무농약을 실현하다**

**무농약 오리농법**

**문제제기-**높은 수확량을 확보하면서도 환경을 보존하는 영농방법은 없을까?

**고정관념-**수확량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자연을 해치게 되고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오리를 이용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경작한다.

**3부 북아메리카**

**\* 어제와는 다른 태양 아래!**

**태양열 분야의 리더 파워라이트**

**문제제기-**전 세계 에너지 모델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바꾼다.

**고정관념-**태양열에너지는 너무 비싸다. 그 분야의 기업들은 절대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경제적으로 수익성 있다는 것이 증명만 되면 이 모델을 확산시키는 일에 누구나 몸을 던질 것이다.

**\* 역주행 기업의 산업혁명**

**‘윤리적’ 티셔츠 제조업체 아메리칸 어패럴**

**문제제기-**저임금 국가의 열악한 작업장을 제품 생산거점으로 이용하지 않고도 시장을 주도한다.

**고정관념-**탈지역화는 불가피하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자국 내에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면서 제품을 생산한다. 뛰어난 제품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기업의 모델이 된다.

**\* 미국문화의 상징에 도전장을 내다**

**‘자동차 나눠 타기’ 리더 플렉스 카**

**문제제기-**미국인들의 자동차 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인다.

**고정관념-**자동차를 소유하고 타는 것은 미국 문화의 상징이다. 미국인들이 자동차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미국인들이 자신의 자동차는 차고에 세워 둘 만큼 매력적이고 기발한 ‘자동차 나눠 타기’모델을 확산시킬 기업을 만든다.

**\* 지구에 유익한 에너지를 위한 아이디어 실험실**

**에너지 문제의 권위 로키마운틴연구소**

**문제제기-**21세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델을 예측해 본다.

**고정관념-**석유 외에는 대책이 없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하이브리드 기술에 기초해서 다국적 기업들과 급진적 환경주의자들을 화해시킬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을 고안해 낸다.

**\* 변화를 퍼뜨릴 사람을 키운다**

**사회적 기업가들의 지원조직 아쇼카**

**문제제기-**남반구 국가에 시민단체가 결성되고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고정관념-**남반구 국가는 북반구 국가의 교훈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한다. 각각의 사람을 변화의 잠재력을 지닌 활동가와 소기업가로 상정한다.

**\* ‘덜 나쁜 것’으론 만족할 수 없다.**

**생물기후학과 생태디자인 분야의 선구적 건축가**

**문제제기-**경제활동과 생태학, 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혁명을 일으킨다.

**고정관념-**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상품디자인, 건축의 방법과 목적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 맥도날드를 뛰어넘은 바이오 패스트푸드**

**유기농 식품 제조기업 스토니필드**

**문제제기-**미국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좋은 식품을 제공한다.

**고정관념-**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쾌락 대신 건강을 선택할 사람들은 케이커교도나 모르몬교도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바이오가 가장 좋은 뜻을 가진 단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 박테리아에 플라스틱의 미래를 걸다**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기업 메타볼릭스**

**문제제기-**플라스틱 산업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변화시킨다.

**고정관념-**공해 없는 플라스틱은 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박테리아가 플라스틱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도 가져다준다!

**\* 월가에서 ‘윤리’를 속삭이는 여인**

**사회책임투자펀드 도미니 사회지수**

**문제제기-**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경영 수준이 투자자들의 선택기준이 될 수 있다.

**고정관념-**이 기준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필연적으로 상충된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사회적 책임투자에서 해법을 찾는다.

**\* 내 회사를 지속가능성으로 필터링하라**

**사무용 카펫 분야의 혁신기업 인터페이스**

**문제제기-**다국적 석유화학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선구자가 될 수 있을까?

**고정관념-**석유화학은 공해를 유발하는 분야일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에너지와 원료의 소비를 줄인다. 폐기물의 배출을 제한하면서 10년내에 매출액을 두 배로 늘린다.

**4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 바다거북과 지역 주민의 상생을 찾아**

**친환경 관광과 종의 다양성 보존의 모델 타마르 프로젝트**

**문제제기-**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을 올리기 위해 바다거북을 몰살시키고 있다.

**고정관념-**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관습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그것이 수익을 가져다줄 경우엔 더욱 그렇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바다거북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추가 수입원이 되게 한다.

**\* 60만 빈민 청소년을 컴퓨터로 한데 묶다**

**빈민 지역 내 정보처리기술학교 네트워크 CDI**

**문제제기-**브라질 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감소시킨다.

**고정관념-**빈민가에서 정보과학 설비를 갖출 방법은 없고, 어쩌면 그 일은 좀 위험할지도 모른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빈민가 아이들이 정보과학기재를 이용해서 서로 결속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하도록 도와준다.

**\* 영혼이 깃든 도시의 침술가**

**지속가능 도시의 대명사 꾸리찌바**

**문제제기-**브라질의 한 대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모델로 만든다.

**고정관념-**대도시는 결코 생태적 모델이 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편리한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주민의 70퍼센트가 쓰레기 분류를 자치적으로 하고 4분의 3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규모 도시를 구상한다.

**\* 전기가 들어오니 젊은이들도 돌아왔다**

**농촌 지역 대상 태양열판 임대기업 IDEAAS**

**문제제기-**브라질 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해서 농촌 이탈을 막는다.

**고정관념-**태양열에너지는 부자들의 사치품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기업을 만들어 1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태양열전기의 혜택을 입게 함으로써 수천 톤의 석유를 절약한다.

**\* 비공식경제의 죽은 자본을 깨우다**

**비공식경제 전문가, ILD 설립자 에르난도 데 소토**

**문제제기-**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사는 ‘잊혀진’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킨다.

**고정관념-**가난한 사람들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법으로 일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부동산 등기 증서는 영세기업과 경제개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요소다.

**\* 텔레비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건위생 의식을 흔들다**

**보건위생 프로그램 소울 시티**

**문제제기-**아프리카의 대중들에게 보건위생에 관한 공익메시지를 전달한다.

**고정관념-**대중은 그런 식의 훈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아프리카인들이 그들과 이웃의 건강을 한 번쯤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세운다.

**\* 아프리카의 미래, 소기업가들을 위해**

**농기구 제조기업 아프로텍**

**문제제기-**아프리카 농촌 지역의 개발을 장려한다.

**고정관념-**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들을 고객으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이 소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부의창출+인본주의

인간의 재능과 창의력을 삶의 방식과 생태계 사이의 조화를 되찾게 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 두 가지 시선을 화해 시켜야 한다.

**의식을 갖고 사회참여를 하는 몇몇 사람들의 작은 단체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어쩌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 관련 참고문헌[www.80hommes.com](file:///G:\2014년%20강의\KU-2014%20강의\학부\대안문화론-2013\강의록\1-대안문화론%20개념규정\수강생%20자료제공\www.80hommes.com)

레스터 브라운,<에코 이코노미>,도요새,2003

레스터 브라운, <플랜B>,도요새,2003

왕가리 마타이 <검은 대륙의 초록 희망>,책씨,2005

카를로 페트리니<슬로푸드> 나무심는사람,2003

레이 앤더슨,<전세계 환경 경영의 첫 번째 이름, 인터페이스>,에코리브르,2004

에르난도 데 소토, <자본의 미스터리>, 세종서적, 2003

무하마드 유누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세상사람들의책,2002

에이미 도미니 <사회책임투자> 필맥 2004

박용남 <꿈의도시 꾸리찌바> 녹색평론사 2005

-

1. **녹색 대안을 찾아서**

* 저자 : 구도완, 김정희 외 9명
* 역자 : 대화문화아카데미
* 출판사 : 도서출판 아르케

목차

**제1부 새로운 자아, 새로운 행복**

**- 생명의지의 발현과 녹색자아 : 녹색사회의 인간학적 기초**

**- 행복경제학 : 적은 돈으로 더 행복해지는 삶의 지혜를 찾아서**

**- 초록 리더십과 풀뿌리 여성리더십**

**제2부 녹색 시민사회, 녹색 거버넌스**

**- 거버넌스의 녹색화, 녹색의 거버넌스**

**- 환경을 살리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운동의 함의와 전망**

**- 민주화 이후의 환경운동과 민주주의의 녹색화**

**제3부 녹색공동체와 녹색정치 그리고 미래**

**- 에코토피아 그 꿈과 실천**

**- 공동체운동과 지속가능한 사회**

**-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와 생명민주주의의 주체 형성**

**- 한국적 초록정치의 탐색 : 기후, 시장 난민시대와 전환의 정치기획**

**요약:**

* 각자의 위치에서 ‘초록, 녹색’을 외치던 10명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은다. 정치, 경제, 환경, 심지어 리더십까지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그들이 내는 목소리의 방향은 모두 같다. 바로 ‘녹색을 위한 현재의 성찰과 나아감’ 이다. 모든 분야에서 생태·생명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그 틀 위에 ‘녹색’ 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또한 대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약간의 불협화음도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며, 이 또한 녹색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얘기한다.

**생명의지의 발현과 녹색자아**

*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이용함.
*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바닷물과 같은 존재. 결국 자연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게 될 것.
* 이에 반해, 생태 담론을 바탕으로 한 생명의지는 충족시키기도 쉽고 행복도 오래 지속.
* 따라서, 생명의지를 발현하고 녹색자아를 갖추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행복경제학**

*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물질적 소유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음. 저자의 의견도 동일.
* 물질적인 것, 특히 돈에 얽매이지 않을 때 사람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음. 그러므로 무엇을 했을 때 진정 행복한 지 찾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돈은 그걸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인식이 필요함.

**에토코피아 그 꿈과 실천**

* 환경(Eco)과 이상(Utopia)의 합성어인 에코토피아. 환경과 인류가 공존하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코토피아가 탁상공론이라고 여김.
* 하지만, 저자는 생태담론과 녹색자아를 바탕으로 인식을 개선한 후 작은 것부터 실천해간다면 에코토피아는 실체화될 수 있다고 말함.
*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자연을 동반자로 여기는 생각, 일회용품 사용 자제, 분리수거 등 사소한 것 부터 환경운동 참여 등 까지 폭 넓게 존재함.

**대안가치:** 초록 · 녹색 대안, 생명 · 생태 담론, 협력

**관련참고문헌:**

*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Roger Trigg
* 『진보의 역설-우리는 왜 더 잘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그레그 이스터브룩
* 『여성, 녹색세상을 말하다-한국여성환경운동의 전망과 과제』, 여성환경연대
* 『개발국가의 녹색성찰』, 문순홍
* 『신개발주의를 멈춰라』, 최병두
*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올리버 포피노
*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강대기

1.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기획 : 학술단체 협의회

저자 : 조돈문

편자 : 배성인, 장진호

출판사 : 메이데이

출판일 : 2011년 07월 04일

★ 저자소개

저자: 조돈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영역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대안 체제와 사회운동,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혁 실험 등이다.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민주노동당 교수지원단 집행위원장과 평가혁신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겸 이사장,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 공동대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편집위원장, 가톨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1996), 『노동계급의 계급 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2004),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 정부』(2009) 등이 있으며, 공저 및 편저로는 『유럽의 노후보장체계와 기업연금』(1997),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1999),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1999), 『구조조정의 정치: 세계 자동차산업의 합리화와 노동』(1999),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2003),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2005), 『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방향』(2005), 『민주노조운동 20년: 쟁점과 과제』(2008),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2011), 『217, 한국 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2011,편저),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 :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안』(2013 출판 예정, 편저) 등이 있다.

**★ 목차**

1부 민주주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

5·18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_**김용복**

법질서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의 위기\_**오동석**

5·18 항쟁과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_**정태석**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축적체제의 역사적 이행과 경제성장의 재인식\_**김정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_**안현효·류동민**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계급적 재생산구조의 변화: ‘금융종속’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_**장진호**

양극화와 비정규: 분석의 확장과 해법의 방향 모색\_**김성희**

최근 ‘복지국가론’의 의미와 전망: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비추어\_**남찬섭**

2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

21세기 사회주의전략: 급진민주주의+녹색사회주의\_**서영표**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_**이정필**

권리와 정의 담론으로 조직된 지역 주체\_**강현수**

협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_**장원봉**

경제운동으로서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와 한국 생협의 방향\_**정원각**

노동자생협운동의 의의와 실천 방향\_**현정길**

한국형 자주관리 기업 발전 연구: 버스 협동조합 자주관리 사례를 중심으로\_**백일**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과 지역운동\_**김혜진**

예술과 철강의 조우, 새로운 지역운동모델로서의 문래동\_**배성인**

아래로부터 진보의 재구성, ‘민중의 집’\_**정경섭**

**★ 내용요약**

**1부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 경제적 퇴행**

**5·18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유신체제의 붕괴는 대한민국 사회에 두가지 길을 가능케 했다. 새로운 독재의 연속과 민주주의로의 발전. 하지만 신 군부의 출현으로 전자의 길을 걷게되었다. 민중들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억압되기 시작하여 재벌중심의 경제성장이 고착화되었으며 억압에 지친 민중들은 결국 5.18 광주항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광주 항쟁은 결국 신 군부의 붕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김영삼 정권에서 행해지던 재벌경제의 과오는 결국 IMF로 이어지고 이에 김대중, 노무현 중도정권이 자리를 하게 된다. 하지만 두 정권 동안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양극화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국민들에 반발을 사 다음 대통령 선거에 보수정권 이명박이 선출된다. 이명박 정권동안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은 계속 폭발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는 말도 듣는 등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 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저자는 이번 챕터를 통해 이러한 5.18 항쟁의 영향아래 있는 한국 사회운동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길을 전망하고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축적체제의 역사적 이행과 경제성장의 재인식**

현 시대 우리 한국의 대중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사회 경제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보통의 대중들이 경제를 통제하지 못하는 형식적 참여의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경제발전의 지향점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적 억압을 벗어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물질적 조건들을 마련하고 그 와중에도 물질적 조건들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성장과정에선 경제성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을 오히려 경제성장이라는 수단에 종속시키는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박정희 시대의 정치적 참여가 배제된 채 소수만이 집행한 경제성장에 이어 80년대 초반 이후 경제의 개방과 자유화에 기초한 성장체제의 전환은 결국 자본규제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체제로 재편되며 지금에 이르렀다. 한가지 공통점은 모두 노동 억압적 경제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맞춰 대중들은 시장 질서를 당연한 것이라 내면화하여 개혁적 정책 추진이 더욱 어려워 진것이다.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계급적 생산구조의 변화 – ‘금융종속’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 신자유주의화의 특징으로 금융종속을 꼽을 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의 자본 비율이 높다는 것, 그 중에서 시가총액규모가 큰 상위권 기업일수록 외국자본 비율이 높은점, 그리고 대형은행의 외국자본이 특히 더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97년 IMF 이후 국내은행과 기업소유의 탈 국적화는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이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외국자본중심의 기업은 국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자기 회사 몸집불리기에만 힘쓰게 만들었다. 공정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속적 금융제도를 고쳐나가야만한다.

**양극화와 비정규 – 분석의 확장과 해법의 방향 모색**

저자는 신자유주의 전개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와 노동유연화 정책의 결과가 사회양극화라 주장하면서 그중에서 특별히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의 관계를 조명한다. 원래 고용은 빈곤의 탈출구가 되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는 고용이 되더라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기이한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많은 지금의 노동시장에서는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도 전에 더 많은 빈곤층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지제도의 확출을 비약적으로 높이거나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전면 뒤바뀌는것이다. 저자는 여기서도 핵심을 비정규직의 차별과 확대 저지를 꼽는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국가론’의 의미와 전망 –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비추어**

국민의 정부 시기에 복지 정책의 테마는 ‘생산적 복지’ 였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비로소 국가에 의한 복지를 경제발전이나 민주화와 같은 하나의 목표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후 참여정부도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보단 생산적 복지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생산적 복지는 한편으로는 실업자를 양산해 내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제도에 시녁을 쓰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성장과 분배가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10년의 복지개혁은 전통적 복지제도의 확충면에선 합격점을 받을만 하나 세계화, 탈산업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최근 부각되는 복지국가론들은 사회연대복지국가론, 역동적 복지국가론, 정의로운 복지국가론, 그리고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한국형 생활보장형 복지가 있는데, 이들은 과거 10년의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접근을 과감히 통합하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저자는 각각의 복지국가론의 의미와 전망을 살펴보고 전망한다.

**2 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

**21세기 사회주의 전략, 급진민주주의+녹색사회주의**

진정한 진보란 무엇일까?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진보는 무엇이며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이념만의 급진성이 아닌 행동에서 실제로 사회변혁을 일으키며 제도정치에 몸을 담그지만 민주주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며 시장의 힘을 사회적으로 감시하는 것. 하지만 구체적 현실과 교감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정치의 싹을 틔우는 것. 제도 안에서 제도에 저항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저자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건 아니지만, 그 전략이 가져야할 중요한 내용 두 가지, 녹색사회주의와 급진민주주의를 제시한다. 급진민주주의는 주변화된 억압된 약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발현시키게 하는것으로 여성주의운동을 예로들 수 있고, 녹색사회주의는 가속화된 생태위기의 원인을 시장자본주의에서 보고 그에 반해 생산,소비,의식의 변화를 자본주의체제의 변혁으로 도모한다. 저자는 이러한 급진민주주의와 녹색사회주의가 지역정치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와 정의 담론으로 조직된 지역 주체**

어떤 대안이건 간에 그 대안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안담론, 둘째, 대안담론을 구체화하여 현실에서 적용가능하게 하는 대안정책, 셋째, 대안정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실행가능하게 하는 대안세력. 이번 챕터에서 저자는 대안담론에 초점을 맞춘다. 대안담론은 위에 언급한 세 가지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안정책과 대안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결국 사람들의 의식변화이고, 그 의식변화를 형성해 내는게 결국 대안담론이기 때문이다. 대안담론의 핵심적 요소로 먼저 권리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이 대안담론에 동조하게 만들려면 우선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찾아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을 심어주는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심어지면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기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또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의는 어쩌면 지배 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담론일 수 있지만, 특권과 불의가 만연한 지금의 사회에서는 정의라는 단어 그 자체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담론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 담론은 가장 폭발적인 힘을 야기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사회변혁의 원동력은 부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론에서 지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역 단위가 정치적으로 가장 동원되기 쉽다는 이유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단위의 운동은 큰 흐름을 만들어 큰 단위를 변혁시킨다. 이러한 지역을 변화시키려는 진보적 주체의 형성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협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1980년대 모스크바 ICA총회의 레이들로 보고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는 현대 사회에 협동조합운동의 딜레마를 건드린 문제였다. 그들은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게되었고, 그를 위해서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무시하고 시장경쟁력을 키우기에까지 이른다. 자본주의의 태동기였던 19세기 유럽노동자들의 결사체주의는 과거 촌락공동체에서 벗어난 도시 노동자들이 사회적 위험이나 필요를 대처해 나아가기 위한 대안으로 자발적인 결사였는데, 이는 애초에 시장경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도 국가와 시장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들의 이해들이 양자의 영역에서 실현되어가기 시작하자 결사체주의는 쇠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세기 말 다시금 시작된 사회적 양극화와 배제의 문제로 다양한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었고 사회적 경제도 주목받기에 이른다. 사회적 경제란 경제를 단순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원리라고 보지않고 경세제민이라는 사회적 행위로서의 경제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그 목표를 정부나 시장에 의해서가 아닌 사회구성원들의 호혜적 결속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며,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자본 등으로 구성된다. 저자는 협동운동과 사회적 경제의 연결을 통해 대안적 경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부터의 진보의 재구성, ‘민중의 집’**

최근 한국 진보진영 전반에서 지역운동이 화두가 되고 있다.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흐름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2000년대 이후 진보정당의 지역조직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갔다. 하지만 기존의 지역운동의 성과와 융합되지 못했고, 오히려 서로간의 갈등관계를 형성하기에 까지 이른다. 저자는 그러한 해결책의 한 가지로 민중의 집 사업을 제시하며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하고있다. 저자는 대안 운동은 당위적, 도덕적, 추상적인 요구의 수준에서 벗어나 대중의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항상 아래로부터의 재구성을 외쳤지만 적극적으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러한 실천의 가이드라인으로 민중의 집을 이야기한다.

**★ 키워드**

지난 30년간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면에서의 **역사의 흐름**을 돌이켜보고, 현시대에 야기된 **사회적 위기**를 **대안운동**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운동의 본거지, 핵심은 **지역**이 되어야 한다.

**★ 관련 참고 자료**

이영재, <광주항쟁과 민주주의>, 광주항쟁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 한국정치 사회학회`한국정치연구회`경향신문 공동주최, 2010년 5월 13일.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제약 조건들>,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1.

김용철, <광주항쟁과 한국정치의 민주화>,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1.

장하준, <개혁의 덫>, 부키, 2004.

김동환, <금융산업의 변화와 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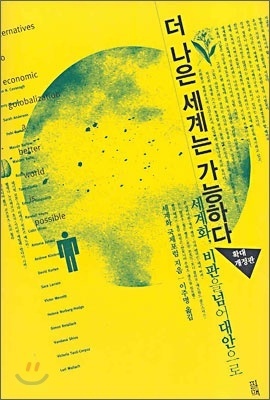
신관영,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나남, 1993.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복지국가 혁명>, 밈, 2007.

하승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후마니타스, 2007.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 이매진, 2010.

마포 ‘민중의 집’, 2008년 11월 1일 창립되었으며 시민강좌, 생활강좌, 회원`주민 교류프로그램, 청소년교실, 공부방, 동아리활동, 지역복지 네트워크, 공간 나눔등을 진행하고잇는 사회단체.



1.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세계화,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저자: 세계화에 관한 국제 포럼(IFG: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역자: 이주명

출판사: 필맥

출판년도: 2005년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이 책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스템을 소개, 분석한 뒤 이 시스템이 가져오는 폐해와 한계를 지적하며 비판한다. 둘째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대체할 보다 더 바람직한 변화상과 원칙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관료 집단에 좌우되는 세계 지배 구조에 맞서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개인적인 실천, 그리고 실제로 세계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세계화(혹은 대안세계화) 운동에 대해 말한다.

★ **저자 소개**

이 책은 개개인이 집필한 책이 아니라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이라는 민간 네트워크에 소속된 십수 명의 필진들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세계화에 관한 국제 포럼은 경제세계화의 물결을 염려하고 이에 반대하는 진영에 서 있는 25개국, 60여 개의 국제적인 사회시민단체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결성한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기존의 경제세계화에 비판적인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 반세계화 운동가, 시민운동 지도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목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여 지금의 세계화를 연구, 분석하고 비판하며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를 대신할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들은 그들의 입장을 전하는 출판물을 발간하고 전 세계에 걸쳐 세미나를 여는 한편 현재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대중 행사를 조직한다. 한편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은 1999년에 대안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여 세계화에 대한 3년간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으며 이 발제에서는 2004년에 출판되어 2005년에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된 개정판을 다룰 것이다.

★ **목차**

들어가는 글: 전환점

1부: 위기에 처한 시스템

1장 대립하는 세계관

2장 기업지배를 위한 설계

3장 부도덕한 삼위일체 –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2부: 실천되고 있는 대안들

4장 지속가능한 사회의 열 가지 원칙

5장 세계화의 출입금지구역, 공동자산 되찾기

6장 세계화에 밀려났던 부차성 원칙의 복구

7장 대안의 운영체제 (1)

8장 대안의 운영체제 (2)

3부: 세계의 지배구조

9장 기업의 구조와 권력

10장 새로운 국제구조

11장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

★ **내용 요약**

이 책은 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크게 세 가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1부, [위기에 처한 시스템]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를 낳은 시스템,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폐해에 대하여 분석한다. 지금의 세계화는 경제세계화이자 금융세계화 혹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규정된다. 오늘날의 세계화의 특징은 경제적 가치, 즉 기업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세계화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초고속 성장, 사유화와 상품화, 경제적, 문화적 동질화, 수출 지향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시발점이 된 제도는 1944년에 각국 관료들이 모여 만든 중앙집중적 세계경제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이다. 각국의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가, 은행가들은 브레튼우즈에 모여 2차대전의 참상을 완화하고 대공황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의논하였고 세계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앙집중적인 세계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브레튼우즈 기구라 불리는 세 기구,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후에 세계무역기구(WTO)로 전환)을 낳았으며 이들은 각국 정부에 채무와 규제를 행사하며 전 세계에 자본과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제하였으며 실제로는 모든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의 이익에 봉사한다. 또, 이러한 모형은 후대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경제세계화 추세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자유로운 자본과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으로 증가된 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내릴 거라는 처음의 구상과는 달리 경제세계화를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다국적 기업과 금융 엘리트일 뿐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경제세계화는 단순히 경제 영역을 넘어 문화를 비롯한 삶 전체의 영향을 미치며 다국적 기업과 금융인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반면 기존의 국가, 지역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힘은 약화되었고 민주주의와 국가 주권, 자연 환경 역시 시장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으로 누리는 자산이었던 것들이 기업에 의해 사유화되어 특정 기업만을 위한 자산이 되고, 문화적인 동질성이 확산되며 다국적 기업이 손쉽게 상품을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수출을 지향하는 산업적 농업의 확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환경이 파괴되는 부작용 등이 지금의 세계화 추세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세계화로 초래된 이러한 위기는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미디어에 의하여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2부, [실천되고 있는 대안들]에서는 현재의 세계화에 대항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원칙을 소개하고 현재의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운영 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운영체제를 고안하여 제시한다. 필진들은 반세계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문건들을 분석하여 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책에서는 세계화에 맞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하의 원칙들은 국가의 정책과 기존의 현상들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첫째 원칙은 직접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정부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지 않게 하며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부차성이다. 부차성 개념은 의식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규칙과 구조로서 지역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결정과 활동은 지역 차원에서 지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진다. 이는 자본의 지역 정착과 지역 자립, 자치를 의미하며 세계화와는 반대되는 원칙이다. 세 번째 원칙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으로 생성 속도 이상으로 자원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은 공동유산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 종의 공동유산을 보호하고 전체를 위한 유산이 특정 기업과 세력의 이해관계만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다양성으로 인간과 인간 문화의 각자 다름에 대한 인정과 관용,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이 인류의 가능성을 풍부하게 해줄 문화적 유산이 되며 부당한 차별로부터 오는 인권의 침해를 막아준다는 뜻을 지닌다. 여섯 번째 원칙은 인권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일터, 생계, 고용의 보장이며 세계화로 이들이 보장받지 못함을 보여 준다. 여덟 번째 원칙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으로 안전한 식량을 자급하는 것이 인간과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 원칙은 형평성으로 세계화로 인하여 확대되는 지역 격차와 빈부 격차를 막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운영 원칙을 지닌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역설한다. 마지막 열 번째 원칙은 예방의 원칙이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새 기술의 부정적 파급영향의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자는 것이다.

필진들은 여기에 제시된 원칙 중 특히 공동자산과 부차성 개념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공동자산은 물, 땅, 공기, 생태계, 유전자원 등등 지구상의 전 생명체가 공유하는 자산으로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세계화 이전에 공동자산은 거래, 사유화, 혹은 상업화의 범주 바깥에 있었지만 세계화 이후 공동자산은 기업에 의해 사유화될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되며 위협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물 공급 기업에 의한 수도 민영화, 생명공학 기업에 의한 종자 상품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삶에 필수불가결한 것들을 소수 기업 관련자만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통제할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다.

부차성은 세계화가 문제라면 대안은 지역화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한 원칙이다. 세계화로 인하여 지역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기에 책임 또한 지지 않는 자본은 지역에 경제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었다. 또한 타 지역과의 거래를 지향하는 경제 체제가 자리 잡았기에 운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 결과 국민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 규제를 하는 정부의 힘은 약화되었고 지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는 희생되었으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생태계 전반이 파괴되었다. 그러므로 지역화는 이러한 경향을 막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책에서는 세계화를 이끄는 관료 집단과 기업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며 전체 사회의 각 경제부문의 운영체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아래에는 그 중 일부를 사례로 들 것이다. 책에 따르면 현재의 화석 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체제는 지나치게 대규모화, 집중화되어있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전쟁 등 갈등을 낳는다. 따라서 풍력과 태양 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 갈등과 불평등으로 인한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수송 체제는 지나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고 따라서 생태계에 가하는 위협이 크다. 따라서 기존의 자가용 위주의 비효율적 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지역간 수송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대 기업에 집중화된 지금의 농업과 식량 체제 역시 반생태적이고 식량안정성과 식품 다양성을 위협함과 동시에 지역 농민들을 몰락케 하기에 비기업적이고 소규모인 유기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책은 나야크리시 안돌론, 나브다냐 운동, 포레스트레이드 등등 이러한 대안적인 실천을 하는 단체와 운동들 역시 소개하며 이 부를 마무리짓는다.

3부 [세계의 지배구조]에서는 지금의 세계화를 이끄는 지배 구조에 맞서는 법에 대하여 다룬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비대한 권력을 견제하는 방법,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국제 구조에 대한 구상, 지역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실천을 자세히 설명한다. 기업 측면을 보자면 공개기업들은 금융적인 이득을 원하는 주주에 의해 움직이기에 단기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책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시민운동을 통해 기업책임성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 있고 기업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법적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유한책임과 기업인격권의 폐지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지금의 협동조합, 노동자 소유 기업 등 공개기업들과는 다른 대안적인 사업구조를 갖춘 기업이 현재의 공개기업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국제 구조 측면에서 금융자유화를 폐지하고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져야한다고도 한다. 금융시장 개방은 개발도상국의 무역적자를 높여 세계 경제의 불안을 낳고 부채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빈곤에 종속시킨다. 게다가 지금의 체제가 개방을 골자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제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게 불공정한 조건(관세 등)을 강요하는 무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책은 민주적 자결권, 균형된 무역, 공정한 일차상품 가격,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개방적 접근의 네 가지 원칙이 무역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미국 등의 강대국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유산을 물려받은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 대신 브레튼우즈 기구를 폐쇄하고 유엔을 구조개혁하여 유엔 아래에 세계 지배구조를 통합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계 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개인으로서 불합리한 세계화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한다. 소비자로서의 개인은 부차성 원칙에 맞는 구매를 하고 정보에 밝아짐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개인은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연금가입자로서의 힘을 행사함으로써, 예금자와 투자자로서의 개인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금융기관과 거래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개인은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활동가가 되는 등 공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 키워드**

세계화, 부차성, 실천

1. 세계화: 이 책에서는 세계화의 본질에 대해 다방면으로 해석한다. 우리는 기업과 국제 구조, 무역, 생태 등의 여러 측면에서 세계화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현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세계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며 세계화를 비판하기 때문에 세계화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볼 수 있다.
2. 부차성: 부차성은 세계화에 반대되는 용어이자 세계화의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되는 단어이다. 초국적적인 자본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자본 시장의 외부 개방과 문화적 획일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권을 가지며 지역 자족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원칙은 반세계화 운동의 핵심을 잘 나타내는 말이라 생각한다.
3. 실천: 이 책에서는 기존 세계화를 관조하며 비판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실천하고 실천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실천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되어 (대안의)실천을 키워드로 꼽았다.

★ **책에 소개된 사회시민단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식량 분야)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미국)]

대규모 농업이 지배적인 미국에서 지역농장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운동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농산물 생산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대가로 농산물을 공급받는다. 책에도 나왔듯이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는 대기업의 대규모 유통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아울러 ‘익명화’된 거래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생산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이 운동은 농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수입을 안겨주는 장점이 있다.

[엘 세이보(볼리비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코코아를 생산, 가공하며 공정무역을 하는 독립적 코코아 판매조직이다. 수익금으로는 유기농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열대우림을 보존하며 작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이 원주민의 후손인 소규모 농가들이다.

[슬로푸드 운동(이탈리아)]

세계화의 바람은 산업적인 농업을 확산시키며 사람들이 건강에 해로운 농산물을 찾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였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역 고유의 농산물이 지닌 가치를 재평가하고 위기에 처한 농산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어난 운동이 슬로푸드 운동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농산물을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관점 등등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생산 계획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며 자연환경을 위협하지 않게끔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한다.

[포리스트 레이드(미국)]

향신료 수입 기업인 포리스트레이드는 자신들과 거래하는 세계 전 지역의 농민들이 공정무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도우며 농민들이 유기농법을 이용하고 기르는 작물을 다양화하도록 지원한다. 이 기업의 제품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되며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돕는다.

(협동조합, 금융 분야)

[우루과이 협동조합주의 센터]

우루과이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로부터 지역사회에 금융 지원을 얻어내어 각 지역사회가 각자의 힘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동조합주의 센터는 특히 주택부족 문제로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한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회사(에스파냐)]

수업 시간에도 다뤘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다. 에스파냐의 바스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로서 에스파냐 전체에서 7번째로 큰 기업이기도 하다.

[그라민은행(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은 담보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상호책임관계를 근거로 소규모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이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룹을 모아 대출신청을 하고 한 사람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다른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그라민은행의 수혜자는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이다. 이 모델은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졌다.

(생태 분야)

[야카마 부족:미국]

미국의 야카마 부족은 9천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목재를 생산한다. 목재를 어떻게 생산할지는 부족 회의에서 결정하고 부족 회의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화이트 어스 토지회복 프로젝트(미국)]

미국의 원주민부락 중 하나인 화이트 어스 출신의 부족민에 의해 1989년에 출범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화이트어스 인디언보호구역의 토지기반을 복구하고, 전통적 토지관리 관행을 살려내고, 원주민의 언어능력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인디언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인디언 보호구역의 야생 쌀을 보호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한 공로를 인정받아 4차 국제 슬로푸드 대회에서 슬로푸드 상을 수상하였다.

[중앙아메리카 농민과 원주민의 임산농가협회]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소규모 임산농가들의 협회이다. 목재를 생산하거나 목재 이외의 임산물 생산, 소규모 어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정보교환과 토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이들은 친환경적 생산에 대가를 지급하는 금융지원체제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개발하고 보급하였다.